

국가 · 도내 공공기관과 협업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15개
공기업 · 출연기관장과
2024 경영성과계약 체결
중기 ·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관련 경영목표 확대



중기 글로벌 수출·마케팅 협력
7일 서울 여의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 박영인 이베이재팬 이사, 김민성 자유아이엔씨 대표 등 참석자들이 도내기업의 현대백화점면세점 kbrandmall 입점과 일본 큐텐 진출, 크리에이티브(1인 미디어)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실 현대백화점면세점 대표, 김관영 도지사, 박영인 이베이재팬 이사, 김민성 자유아이엔씨 대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15개의 공기업·출연기관장과 2024년 경영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15개 공기업·출연기관장이 기관별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공식인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2024년 15개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목표 수는 총 204건으로, 작년보다 도점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투입 지표 중심의 성과목표를 곁과 지표 중심으로 개선했으며, 56건의 신규 목표를 추가했다.

특히, 올해는 도정 최우선과제인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 관련 성과 목표를 확대·신설했으며, 전 기관 공통지표인 '국가 및 도내 공공기관과의 협업' 목표를 작년에 비해 상향 조정하고 협업기관을 다변화하도록 했다. 기관별 주요 경영성과목표를 살펴보면, 전북연구원은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 사업을 54건, 정책 및 현안과제는 작년 24건보다 92% 증가한 46건을 발굴할

계획하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작년보다 9% 증가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으로 176건을 해결하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 확산을 신규 과제로 추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액을 작년 대비 13% 증가한 4,521만불로 설정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목표 대비 35.5% 증가한 신용보증 8,121억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밖에도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여성 일자리 상용직 고용유지율 60%와 시의 성 있는 여성가족정책개발 10건을 목표로 삼았으며 전북바이오험업진흥원은 농생명식품산업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매출증가율을 작년 대비 8% 증가한 14%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시·군 연계 지역특화 휴양·치유 관광콘텐츠 발굴 건설을 작년 대비 30% 증가한 13건으로 설정했다.

국회의원선거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체대회 등 일체

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정당·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단체·지역·계층·성별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지체인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전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민주 정동영 예비후보,尹특별사면 관련

"누가 봐도 속보이는 셀프 사면"

"검사일 때는 엄벌해야 한다더니 대통령 된 뒤엔 면죄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예비후보(전주병)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단행한 특별사면은 관행을 내세워 누가 봐도 속보이는 셀프 사면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검사권력을 휘두를 때는 중대범죄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대통령이 된 뒤에는 입장을 뒤집어 면죄부를 준 격"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특별사면 취지를 들어 보면 국민통합의 계기를 삼으려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대다수가 여권 보수 성향의 인물이 많아 편파적 사면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미리 알고 재판을 포기하지마자 사면이 단행

돼 셀프 사면이라는 의혹도 짙다"고 강조했다. MBC 앵커 출신의 정 예비후보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전 MBC 경영진 4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두 명의 MBC 사장과 두 명의 부사장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면서 "언론장악 후위병들에게 불법외력을 지원준 보상이라는 언론노조 비난을 되세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금 형평을 잃어버린 특별사면이 중요한 개나리 안일한 경제 정책으로 파탄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영수회담을 거국적 차원에서 결행하는 게 더 다급하다"면서 "민생 살리기를 비롯해 검찰총장과 보복수사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야당 대표와 대화에 나서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황현선 예비후보, 문 전 대통령 등에 저서 전달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식' 출간... 文, 출간 축하 격려

더불어민주당 황현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서의 기록을 담은 '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식'을 발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황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날(지난 6일) 양산의 평산책방을 직접 찾은 황 예비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책을 살펴보는 등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등 책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출간 축하 후보인 황 예비후보의 근황을 묻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지하지 말고 묵묵히 마음 먹은 길을 가라"며 황 후보를 격려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자신의 저서를 손수 전달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 대표에게 '총신 승리로 검찰개혁 완수'라는 자필 메시지를 써서 건넸다. 황 예비후보가 지난 5일 출간한 '조



국 그리고 민정수석식'은 민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저자가 권력기관 개혁에 참여했던 과정과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윤석열 검찰이 지행했던 악행들로 인해 조국과 그의 가족이 겪은 온갖 수모와 고난을 날마다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조국 전 장관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했다. /특별취재반

4월 국회의원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완전무장 특별시 발전 전략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선도지로"

민주 안호영 의원 3선 도전... "尹 정권 무능 막고 총신 승리 기반 정권교체 선봉장 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안주·진안·무장·장수(이하 완전무장) 국회의원의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재롭게 출발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에서 특별한 기회를 활용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과 함께 완전무장을 업그레이드 시켜겠다"며 "완전무장 4개군을 특별시 발전 전략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선도지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2년동안의 국정 운영 평가는 참담했고, 남북 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때 아닌 정정 위기가 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3선의 힘으로 윤석열 검찰특재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고, 민주당의 총신승리를 이루고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북 특자도 출범에 발맞춰 동서횡단 철도와 고속도로 확충같은 교통 문제와 새만금권, 중추도시권(안주·무주·장수) 등 권역별 특화지구 지정에 따른 전북의 균형있는 발전도 완전무장과 함께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설명했다. 완전무장의 4개군 특별시 발전 전략은 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완전무장 미래 청사진이라 정의했다. 이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완주는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은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는 청정태권특별시로, 장수는 미래산업특별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안 의원은 "8년 연속 민주당 국정강

사 우수의원 선결과 21대 국회 법안 통과율 전북 1위는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방증"이라며 "완주의 삼봉지구 활성화, 지적권산림치유원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한 검증받은 전문가로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농해수위 상임위원회 활동과 사법특위, 기후위기특위 활동을 했다. 수석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회와 지역에서 이룬 성과는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로 재선 의원으로서 능력이 확인된 것"이라며 "3선 중진으로 압도적 총신 승리를 이끌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성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과 완전무장의 4대 특별시 발전을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6일,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06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6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 기획실,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최순선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군 육아 정책 수립 제안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 촉구'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국정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절박한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며,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획기적인 특별함의 내용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자문특별시 무주도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제306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제정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도민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위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김재훈 기자

"정부, 새만금 기본계획에 메가시티 반영해 달라"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

전북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7일 군산시의회의 브리핑룸에서 시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최근 갈림을 통해 새만금 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등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도 새만금 3개 시군의 갈등을 줄이고 새만금 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

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전북 1호 공약으로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고 내세웠다"며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주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해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군산=김관근 기자